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Strategies for Coping with Stress and
Behavior Problems in School-age Children

박진아**

Park, Jin Ah

정문자***

Chung, Moon Ja

ABSTRACT

The strategies used by 274 4th and 6th graders for coping with stress were assessed by the Daily Hassles Coping Scale(Min & Yoo, 1998), and their behavior problems were assayed by their mothers with the Korean version of Achenbach's Child Behavior Check List(Oh, Lee, Hong, & Ha, 1997).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2-way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Findings were that girls used more passive/avoidant coping strategies than boys; 6th graders used more passive/avoidant coping strategies than 4th graders; 6th grade boys had more internalized behavior problems than 4th grade boys; 4th grade girls had more internalized behavior problems than 6th grade girls; passive/avoidant strategi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internalized behavior; aggressive strategi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externalized behavior; strategies of seeking social support were negatively related to bo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 problems.

Key Words : 학령기 아동(school-age children), 스트레스 대처행동(strategies for coping with stress), 행동문제(behavior problems)

* 본 논문은 2001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졸업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인들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일상생활의 사건들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스트레스가 일상용어로 통용될 정도로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대가 흐를수록 개인이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종류가 다양해지며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중년기 성인이 겪는 현상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생활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며 인간이 출생함과 더불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며(한미현, 1996; Compas & Wagner, 1990), 이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도 성인 못지 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령기 아동은 가족 관계에서 더 나아가 학교와 또래집단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사회적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많은 적응적 요구를 겪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국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의 내원 아동 환자들 가운데 60% 정도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과 신체적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5년 사이에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때문에 소아정신과를 찾는 아동들의 수도 6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될 만큼 스트레스로 인해 발달상의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국민일보, 2000년 5월 4일자). 이는 스트레스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시사한다.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DeLongis, Coyne, Dakof, Folkman, & Lazarus, 1982)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행동문제를 예측하는 데 있어 설명력이 크다. 특히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Holahan & Moos, 1987), 신체적 건강상태(한미현, 1996), 우울증(Rowlison & Felner, 1988), 다양한 형태의 행동문제(한미현, 1996)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아동의 스트레스와 심리 정서적인 부적응 및 행동문제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인간이 출생과 더불어 전 생애에 걸쳐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볼 때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자들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문제를 덜 보이는 개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서(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대처하는가와 관계된 대처행동에 의해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이 중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and & Weisz, 1988). 즉 스트레스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

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대처에 실패하게 되면 심리·정서적인 부적응을 보이게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개인의 적응력을 예측함에 있어 스트레스의 경험 유무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부적응 및 행동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어떠한 대처행동을 보이는지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에 대한 연구(Band & Weisz, 1988; Cohen & Lazarus, 1983)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에 대한 연구(박경순, 1999; 박선영, 1993; 이미리, 1995)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를 이해하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성인과는 발달정도가 다를뿐 아니라 지속적인 발달 과정 중에 있는 학령기 아동의 행동을 유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의 양상을 알아본 연구는 극소수(이현정, 1997; 정영숙·정승희, 1996)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현정, 1997; Glyshaw, Cohen, & Towbes, 1989)들의 대부분은 성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방법론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성인의 대처행동은 문제 지향적 대처행동과 정서 지향적 대처행동

(Folkman & Lazarus, 1984), 또는 접근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Ebata & Moos, 1991) 등과 같이 이차원적 대처행동으로 구분된다. 반면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성인과 달리 다차원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ausey & Dubow, 1992). 따라서 성인의 이차원적 대처행동 범주로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충분히 대표하거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성인의 이차원적 대처행동 측정도구를 아동에게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아동이 사용하는 다양한 대처행동에 따라 행동문제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이차원적 분류가 아니라 다차원적 분류로 측정하여, 이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차이가 있으며(이정미, 1996; 진은경, 1990), 대처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지적인 능력의 발달로 인해 연령간의 차이도 보고되었다(윤유경, 1990; Folkman & Lazarus, 1984). 뿐만 아니라 아동이 주로 보이는 행동문제 유형에도 성차(이현정, 1997; Eme, 1979)와 연령차(양혜영, 이해련, 1996; Achenbach, 199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에 대해 성차와 연령차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 만큼,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인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향이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 연구들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4개 하위차원으로 분류하고, 이들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구체적으로 행동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기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기능을 증진시켜서 생활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임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Compas, 1987), 본 연구를 통해 교사 및 부모가 모두 함께 아동이 스트레스에 효율적이면

서 적절한 대처행동을 사용하도록 도와 행동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에 토대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아동의 행동문제는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아동의 성과 학년을 통제한 상황에서 아동의 행동문제를 의미 있게 설명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의 4학년 아동 127명(남아 67명, 여아 60명)과 6학년 아동 127명(남아 60명, 여아 67명)으로 아동 총 254명과 그들의 어머니 254명이었다.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2곳을 임의 선정한 후, 4학년과 6학년에서 7학급씩 각각 무선 선정하여 총 14학급의 아동 364명과 그들의 어머니 36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어머니용 질문지 320부가 회수되어 87%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어머니와 아동용 질문지 중 어느 한쪽에 응답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여 아동과 어머니 254쌍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인지적인 면에서 새로운 인지체계 구축 및 상향된 학습능력의 기대가 가중되며(민하영·유안진, 1998), 성취해야 할 여러 가지 발달과업을 갖게 되므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 대상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졸 이상이 87.5%, 어머니의 경우 대졸 이상이 74.9%로 부모 모두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사무·관리직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는 과반수인 74.4%가 전업주부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어머니(87.4%)는 자신들을 중류층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연구도구

1)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민하영과 유안진(1998)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는 적극적 대처행동 9문항, 소극적 대처행동 11문항, 공격적 대처행동 6문항, 회피적 대처행동 9문항,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5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다른 대처행동 하위영역에 비해 공격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 대처행동의 문항수가 적었기 때문에 정원주와 윤종희(1997)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참고해 공격적 대처행동 5문항,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5문항을 추가하여 총 50문항으로 구성된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아동에게 적합한 수준의 질문수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시내 1개 초등학교의 연구대상 학년 총 21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스트레스 대처행동 총 50문항에 대한 주성분분석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max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축을 회전한 결과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총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본조사용 도구 구성을 위해 각 하위범주별로 요인 부하량이 .40이상이면서 다른 요인에 동시에 포함되지 않는 문항을 선별한 결과 4개 하위영역별로 5문항씩 총 20문항이 선정되었다. 각 하위척도별 문항내용과 요인분석 결과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대체로 그렇다(3)’, ‘항상 그렇다(4)’의 4점 평정 척도로 평

가한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81이었으며, 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공격적 대처행동 .85, 적극적 대처행동 .87,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78,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64이었다.

2)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 (1983)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표준화한 K-CBC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행동문제 척도 총 117문항 중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 6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내면화 행동문제는 위축 9문항, 신체증상 9문항, 우울/불안 14문항의 총 32문항, 외현화 행동문제는 비행 13문항, 공격성 20문항의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CBCL은 아동의 부모가 보고하는 척도로서 아동이 지난 6개월 동안에 보인 행동문제들을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평가는 ‘전혀 아니다(0)’, ‘가끔 그렇다(1)’, ‘자주 그렇다(2)’의 3점 평정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K-CBCL의 전체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86이었으며, 각 하위영역별 Cronbach α 는 내면화 행동문제 .83, 외현화 행동문제 .8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각각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아동의 성과 학년의 효과를 통제한

조건에서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행동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성과 학년을 1단계

에, 스트레스 대처행동 4개 하위차원을 2단계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그리고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아동의 성과 학년별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N=254)

하위영역	독립변인	학 년		
		성	4학년(n=127) M(SD)	6학년(n=127) M(SD)
공격적 대처행동	남아(n=127)	11.05 (4.02)	11.90 (3.27)	11.45 (3.69)
	여아(n=127)	11.17 (3.58)	11.48 (3.60)	11.33 (3.58)
	전체	11.10 (3.80)	11.68 (3.44)	11.39 (3.63)
적극적 대처행동	남아(n=127)	13.50 (4.10)	13.15 (3.44)	13.34 (3.79)
	여아(n=127)	12.03 (3.85)	13.13 (3.18)	12.61 (3.54)
	전체	12.81 (4.04)	13.14 (3.29)	12.98 (3.68)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남아(n=127)	9.81 (3.10)	9.32 (3.20)	9.57 (3.14)
	여아(n=127)	9.45 (3.00)	9.52 (2.21)	9.49 (2.60)
	전체	9.64 (3.04)	9.43 (2.72)	9.53 (2.88)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남아(n=127)	8.75 (2.96)	10.03 (3.14)	9.35 (3.10)
	여아(n=127)	10.52 (3.01)	10.99 (3.01)	10.76 (3.15)
	전체	9.58 (3.24)	10.54 (3.10)	10.06 (3.20)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각 하위영역이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하위영역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성	117.28	1	117.28	12.21***
	학년	48.77	1	48.77	5.08*
	성×학년	10.61	1	10.61	1.11
	오차	2400.59	250	9.60	

* $p < .05$, *** $p < .001$

결과를 살펴보면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에서 성에 따른 주효과($F=12.21, p<.001$)와 학년에 따른 주효과($F=5.08, p<.05$)가 나타났다. <표 1>에 의하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 6학년이 4학년에 비해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그리고 6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에 비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에서 발생된 부정적 감정을 완화·조절하거나 또는 문제를 유보하거나 수용해서 문제해결을 회피하려는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 반면에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제외한 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는 성과 학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동의 행동문제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내면화와 외현화 행

동문제 영역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의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3> 아동의 성과 학년별 행동문제의 평균과 표준편차 (N=254)

독립변인 하위영역	성	학년		
		4학년(n=127) M(SD)	6학년(n=127) M(SD)	전체
내면화 행동문제	남아(n=127)	7.76 (6.17)	9.82 (6.25)	8.73 (6.27)
	여아(n=127)	10.33 (7.20)	8.99 (5.51)	9.62 (6.37)
	전체	8.98 (6.77)	9.38 (5.86)	9.18 (6.33)
외현화 행동문제	남아(n=127)	8.93 (5.72)	8.62 (4.72)	8.78 (5.25)
	여아(n=127)	9.25 (6.41)	8.37 (5.45)	8.79 (5.92)
	전체	9.08 (6.03)	8.49 (5.10)	8.78 (5.58)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가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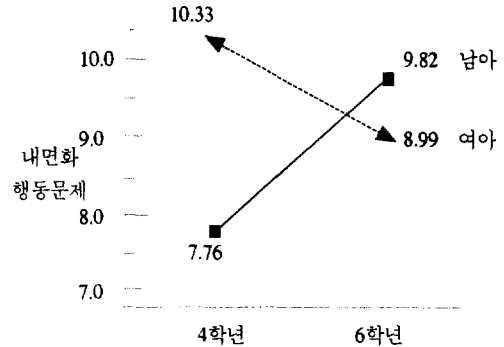
<표 4>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행동문제의 이원 변량분석 결과

하위영역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내면화 행동문제	성	47.95	1	47.95	1.21
	학년	7.92	1	7.92	.20
	성×학년	183.36	1	183.36	4.64*
	오차	9883.48	250	39.53	

*p < .05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에서 성과 학년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F=4.64, p<.05),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표 3>와 <그림 1>에 의하면, 4학년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였으나, 6학년에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은 경우, 여아는 불안, 우울 및 위



<그림 1>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의 성과 학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축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가 적게 나타나는 반면 남아는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의 경우 성과 학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3.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

일반적으로 성과 연령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한미현, 1996; 홍경자, 1986)를 고려하여 행동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설명력이 성과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의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성과 학년 변인을 1단계에 투입한 후, 스트레스 대처행동 4개 하위차원을 2단계에 투입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상관 관계 분포가 .02~.44로 나타나 독립변인들 간의 높은 상관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성과 학년이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유의한 상관(각각 r=.22, r=.15, p<.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 학년을 통제 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행동문제 독립변인	내면화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1 단계	2 단계	1 단계	2 단계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성 학년	.87 .18 .01	.04 -.09	.04 -.29 .00	-.14 -.51
공격적 적극적 사회지지추구 소극/회피적		.02 -.10 -.45*** .53*** .10***		.30** .03 -.45*** .16 .09***
전체 R ²		.11***		.09***

** $p < .01$, *** $p < .001$

<표 5>에 의하면, 아동의 성과 학년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아동의 내면화, 외현화 행동문제 모두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내면화 행동문제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통제변인인 아동의 성과 학년은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를 1% 설명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 단계에서는 소극/회피적 대처행동($\beta = .53$)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beta = -.45$)이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 변량의 10%를 추가로 의미 있게 설명하였다. 이는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

록, 그리고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적게 사용할수록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귀 방정식에 투입된 성과 학년, 스트레스 대처행동 각 하위영역 변인들은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 총 변량의 11%를 설명하였다. 둘째, 외현화 행동문제의 경우 내면화 행동문제와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통제변인인 아동의 성과 학년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의미 있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공격적 대처행동($\beta = .30$)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beta = -.45$)이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변량의 9%를 추가로 의미 있게 설명하였다. 즉 아동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고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적게 사용할수록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귀 방정식에 투입된 성과 학년, 스트레스 대처행동 각 하위영역 변인들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총 변량의 9%를 설명하였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들 중 적극적 대처행동은 모든 회귀분석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아동의 내면화,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모든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45$, $\beta = -.45$). 즉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설명하는 일관된 변인이었으며, 이는 아동이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적게 사용할수록 내면화 행동문제나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

동문제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영역 중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에서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차를 살펴보면 남아에 비해 여아가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Endler & Parker, 1990; Windle & Windle, 1996)들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여아의 기질적 측면과 사회화 과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감정적으로 더 민감하기 때문에(Brody, 1985)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거나 조절하는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으로 남아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이 바람직 한 것으로 학습되는 반면 여아의 경우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성향이 중요한 것으로 학습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여아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직접적인 대처행동보다는 단지 자신의 내적인 감정을 조절하거나 문제를 수용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여아의 대처행동은 사회적으로 여아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여아로 하여금 더 많이 사용하도록 강화된다고도 볼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를 살

펴보면 4학년 아동에 비해 6학년 아동이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년이 높아지면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보다는 정서 중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여러 선행연구결과(Compas et al., 1988; Hoffman, Levy-Shiff, Sohlberg, & Zarizki, 1992)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통제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같은 인지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Compas et al., 1988), 아동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인지발달이 성숙해감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상황에 적응하려는 내적 측면의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성차와 학년차를 살펴본 결과 아동이 보이는 내면화 행동문제에서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4학년 아동의 경우 여아가 남아에 비해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6학년 경우에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아의 경우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고, 여아의 경우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인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한미현, 1996; Horwitz & White, 1987)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 가능성 측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여아는 남아보다 더 감정적이며 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Brody, 1985), 남아는 외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Tannen, 1990, 재인용) 4학년 여아의 경우 4학년 남아에 비해 개인 내부의

심리·정서적 부적응과 관련된 행동문제인 내면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남아와 여아가 각기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여아의 경우에는 내적 감정을 발산하고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묵인되지만, 남아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특히 아동기는 사회적 시인을 얻기 위해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정서표현 유형은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시기(김경희, 1999)인 만큼,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남아로 하여금 내적 감정을 발산하여 해소할 기회를 제한 받게 만든다. 그러므로 남아는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년이 높아지면 남아는 부정적인 내부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과잉 통제하며, 자신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위축되어 내면화 행동문제가 증가(이정미, 1996; Casado, 2000)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남아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제한하는 것이 정신건강상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위험 요인이 된다는 Hendryx와 동료들(1991)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반면에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외부적으로 발산하고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 감정 발산을 더 잘하게 된다(Bernard & Monique, 1995). 또한 남아에 비해 사회적 지지추구를 더 많이 하고(Stark, Spirito, Williams, & Guevremont, 1989)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도 높은 만큼(Dubow & Ullman, 1989) 주위의 도움을 받아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학년이 올라가면서 내면화 행동문제가 감소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발달 단계상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사춘기로 인한 스트레스 개념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춘기는 2차적 성징과 같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사춘기가 되면 아동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Petersen & Taylor, 1980).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해 영양상태와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빨라져 여아는 대부분 10세 정도가 되면 사춘기에 들어서게 된다(한겨레 신문, 2001년 2월 17일자). 즉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되면 여아의 경우 사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체·심리적 변화로 인해 심리·정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또한 사춘기의 특성 상 자신의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혼란 및 갈등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 사회적 위축 등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가 증가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남아는 여아에 비해 1-2년 정도 늦게 사춘기가 시작되므로(이춘재·오가실·정옥분, 1991)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비로소 사춘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때문에, 저학년에 비해 학년이 올라가면서 심리적 혼란으로 인한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실제로 아동 후기의 남아가 여아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심희옥(1997)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마지막으로 내면화 행동문제에서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동의 행동문제가 어머니에 의해 보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여아의 내면화 행동문제

인 우울과 불안, 사회적 위축과 같은 행동들은 사회적으로 여아의 일반적 성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행동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남아가 보이는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미성숙 행동과 같은 행동들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학년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아가 여전히 내면화 행동문제를 보이게 되면 어머니는 이를 심각한 행동문제로 인식하여 보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를 아동 자신이 아닌 어머니가 보고한 것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어떠한 하위영역이 행동문제를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내면화 행동문제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의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이 내면화 행동문제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는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정적인 관계,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는 아동이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고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적게 사용할수록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극/회피적 대처를 포함한 정서 중심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아동이 우울(Jorgensen & Dusek, 1990)과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인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이현정, 1997; Windle & Windle, 1996)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초래되는 정서적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인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감정을 통제하거

나 스트레스의 원인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고립된 활동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숨기는 행동을 자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회피하거나 과잉 통제함으로써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사회적으로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아동은 대부분 순종적이며 순한 아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가 관심을 덜 가질 수 있지만, 그런 아동에게도 적응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아동이 스트레스에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경우, 주변의 교사나 부모들은 적응을 잘 하는 아동으로 인식하여 방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아동으로 하여금 감정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발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외현화 행동문제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외현화 행동문제는 공격적 대처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는 아동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고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적게 사용할수록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아동 자신은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공격적 대처행동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주위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어 사회적 제재가 따르게 된다. 하지만 이

때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행동이 대안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외부적 통제는 아동으로 하여금 오히려 해결되지 못한 감정을 과잉분출 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아동은 비행이나 난폭한 행동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더욱 많이 보이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아동에게는 우선적으로 그에 대한 대안적이며 바람직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이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 모두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사용할수록 아동의 우울 수준이 낮아지고, 비행행동도 감소했다는 Windle과 Windle(199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이나 친구, 교사와 같은 사회적 지지원에게 도움을 더 많이 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지지원에게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알리게 된다. 이에 따라 아동은 사회적 지지원에게 스트레스 상황과 문제를 이해 받게 되는 동시에 직·간접적 도움을 제공받게 되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갈등으로 인한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완효효과가 있다는 Cohen과 Wills(1985)의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해본다면 아동의 행동문제 중재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대처할수록 행동문제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문제를 완화시키

고 중재하기 위한 대처행동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서울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2곳의 4학년과 6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포함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 보고를 사용하였는데 어머니의 보고가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Compas et al., 1989)를 고려한다면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자료를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동 자신과 교사 및 또래들에게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상반되게 6학년 아동의 경우 남아가 여아에 비해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기 때문에 남아의 내면화 행동문제를 연령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종단적 연구를 통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뿐만 아니라 부모변인, 학교변인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이 남아의 내면화행동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에 대한 보다 깊은 탐색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이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탐색은 없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아동이 보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사회지지 추구 대처행동이 아

동의 내면화, 외현화 행동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해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다양한 사회 지지원들을 활용하고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다차원적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우리 나라 초등학교 아동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동 행동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또래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망 등 아동을 둘러

싼 환경적인 변인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온 반면 본 연구는 아동의 개인적 요인인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행동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아동 내부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들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지 알아보았다. 따라서 초등학교나 임상 현장에서 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스트레스 대처행동 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민일보. 2000년 5월 4일자. 소아스트레스 진단과 대처법.
- 김경희(1999). 발달심리학-생애발달. 서울 : 학문사.
- 민하영, 유안진(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 박경순(1999).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양식 및 우울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1993).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지적 평가와 대처행동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1997).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 양혜영, 이해련(1996). 소아정신과에 의뢰된 아동의 주문제에 대한 분석: 발달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9(2), 106-121.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중앙적성연구소.
- 윤유경(1990). 아동의 스트레스 대응양상의 발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리(1995). 고3 청소년의 시험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과 우울증 수준과의 관계-복합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89-98.
- 이정미(1996). 초등학교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 대처방법유형.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 오가실, 정옥분(1991). 사춘기 신체성숙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4(1), 89-102.
- 이현정(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학업성취 및 행동문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 정승희(1996). 일부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행위 측정. *한국학교보건학회지*, 9(2), 185-195.

- 정원주, 윤종희(1997). 한국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95-106.
- 진은경(1990).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아동의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경자(1986).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양상 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겨레 신문. 2001년 2월 17일자. 사춘기 빠른 아이들.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and, E. B. & Weisz, J. R.(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bod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 Bernard, P. & Monique, B.(1995). Coping and mental health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8, 459-474.
- Brody, L. R.(1985).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development: A review of theories and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53, 102-149.
- Casado, M.(2000). Coping strategies and gender differences among children who have been exposed to risk fac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Causey, D. L. & Dubow, E. F.(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7-59.
- Cohen, F. & Lazarus, R. S.(1983). Coping and adaptation on health and illness. In D. Meadhanic(Ed.), *Handbook of health, health care, and the health professions*. New York: Basic Books Inc. 608-635.
-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mpas, B. E.(1987). Stress and life event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7, 275-302.
-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M.(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 Compas, B. E. & Wagner, B. M.(1990). Gender, instrumentality, and expressivity: Moder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psychological symptoms during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383-406.
- DeLongis, A., Coyne, J. C., Dakof, G., Folkman, S., & Lazarus, R. S.(1982). Relationship of daily hassles, uplift, and major life events to health status. *Health Psychology*, 1, 119-136.
- Dubow, E. F. & Ullman, D. 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 Ebata, A. T. & Moos, R. H.(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54.
- Eme, R. F.(1979). Sex difference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rejoinder. *Psychological Bulletin*, 86, 574-595.
- Endler, N. S. & Parker, J. D. A.(1990).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44-854.
- Folkman, S. & Lazarus, R.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Glyshaw, K., Cohen, L. H., & Towbes, L. C.(1989).

-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Prospective analyses of early and middle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 607-623.
- Hendryx, M. S., Haviland, M. G., & Shaw, D. G. (1991). The place of emotion in ident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 503-518.
- Hoffman, M. A., Levy-Shiff, R., Sohlberg, S. C., & Zarizki, J.(1992). The impact of stress and coping :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451-469.
- Holahan, C. J. & Moos, R. H.(1987).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365-370.
- Horwitz, A. V. & White, H. R.(1987). Gender role orientations and styles of pathology among adolescenc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158-170.
- Jorgensen, R. S. & Dusek, J. B.(1990). Adolescent adjustment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58, 503-513.
- Petersen, A. C., & Taylor, B.(1980). The biological approach to adolescence: Biological change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In J. Adelse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 Wiley.
- Rowlison, R. T. & Felner, R. D.(1988).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432-444.
- Stark, L. J., Spirito, A., Williams, C. & Guevremont, D.(1989). Common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 Findings with normal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7, 203-212.
- Tannen, D.(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New York : Ballantine Books.
- Windle, M. & Windle, R. C.(1996). Coping strategies, drinking motives, and stressful life events among middle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with academic function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551-560.

〈부록 1〉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에 대한 요인행렬표

하위영역	문항내용	I	II	III	IV	h ²
공격적 대처행동	3.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을 돌려주거나 욕해 준다.	.75				.31
	7.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을 때려준다.	.74				.42
	11.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 해본다.	.73				.30
	15.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에게 화를 내며 따진다.	.69				.36
	19. 친구나 가족에게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든 사람을 욕하거나 좋지 않게 얘기한다.	.59				.45
적극적 대처행동	1.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77			.37
	5.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75			.52
	9.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본다.		.71			.62
	13.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배울점을 찾아본다.		.64			.55
	17. 문제가 생긴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59			.41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4.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도움을 청한다.			.73		.49
	8. 전화상담을 하거나 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73		.30
	12. 친한 사람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도움을 구한다.			.57		.35
	16. 부모님께 나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얘기하고 도움을 구한다.			.52		.55
	20. 나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52		.40
소극/ 회피적 대처행동	2. 혼자 조용히 운다.				.70	.37
	6. 좋아하는 강아지나 인형, 사진 같은 것을 보면서 속상하거나 슬픈 내 마음을 얘기한다.				.57	.50
	10. 내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집을 나가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또는 죽는 것을 생각해본다.				.56	.36
	14. 그런 문제를 당한 내가 불쌍하고 안됐다고 생각한다.				.54	.37
	18. 살아오면서 좋았던 것, 즐거웠던 것만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잊으려고 애쓴다.				.49	.36
고유치 설명변량(%) 누가변량(%)		3.6	3.5	2.6	2.1	
		13.4	12.9	9.7	7.6	
		13.4	26.4	36.1	43.7	